



## Delivered Electronically

수신: 케이티앤지 이사회

참조: 손동환 / 광상욱 / 김명철 / 고윤성 / 손관수 / 이지희 / 방경만

2024년 3월 28일

케이티앤지 이사 여러분,

오늘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회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제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공허한 구호 말고, 아래 다섯가지의 중점사항을 오는 6월말까지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요구합니다.

1. 추가연동 성과보상: 사장 및 이사회 전원, 연봉의 적어도 3분의 2 이상을 스톡옵션으로 지급. 현 주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저평가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부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솔선수범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회계투명성 개선: 해외 사업 실적 공개 및 실태 조사. 특히 켈런담배 제 3국 밀수 리스크 및 일본시장에서 필립모리스에 의한 릴 de-marketing 사태 파악이 시급합니다. 일본 편의점의 90%에서 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3. 기부된 자사주 환수: 복지/장학재단이 전현직 임원의 노후대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도록 일체 관여를 금지시키고, 무상 기부된 자사주의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인삼의 세계화: 한국인삼공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담배영업사원 낙하산이 아닌 검증된 "글로벌 소비재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펀드투자 중단: 케이티앤지는 자산운용사가 아닙니다. 각종 부동산/사모 펀드 등 투자를 중지하고, 잉여 현금은 주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현재 케이티앤지는 횡령 혐의로 기존 이사회 전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유례 없는 '거버넌스 붕괴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있는 분들은 자진 사퇴하시어, 케이티앤지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안에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상현 드림

[shlee@flashlightcap.com](mailto:shlee@flashlightcap.com)